유랑하는 몸, 대구에서 서울까지

아트인컬처 평론 프로젝트 '피칭' 제 34회 피칭 선정자 박주성

PITCHING 권효원

2026 / 11 / 04

박주성

오늘날 예술가의 몸은 한 장소 다음에 또 다른 장소를 떠돈다. 동시대예술은 예술가에게 장소와 기관, 제도, 담론 사이를 유랑하도록 요구하고, 작가는 세계를 떠돌며 CV를 한 줄씩 늘려간다. 미술사학자 권미원은 이 덧없는 방랑에 대해 그저 '한 장소 다음에 또 다른 장소'로 흘러갈 것이 아닌, 장소와의 관계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한다.

공간적 개념인 유랑은 동시대예술계에서 시간적 성격을 띤다. '동시대(contemporary)'란 con(함께), tempus(시간)로 동등한 시간선의 공유를 의미한다. 피터 오스본은 동시대성을 다양한 시간의 결합으로 본다. 하지만 현실의 동시대성은 '시차'로 작동하고 있으며, 글로벌 예술씬은 지역별—뉴욕 같은—로 분산된 시간성을 따라 조율하기를 요구한다. 예술가의 유랑은 장소 사이의 상이한 시간을 넘나들며, 자신의 시간을 선단에 맞춰 조율하는 행위가 된다.

영주에서 대구로, 다시 대구에서 서울로. 마흔둘의 안무가 권효원은 삶의 장소를 옮겨왔다. 관습적 유랑에 못 미치는 거리지만, 공간 사이의 시차는 물리적 거리를 초과하는 이동의 폭을 갖게 한다. 그녀는 '서울'을 명시한 <서울무용>(10. 7~10 신촌극장)을 통해 이 유랑에 대해 말한다. 옥탑을 개조해 만든 신촌극장의 좁은 무대에 권효원이 올라섰다. 스탠드업 코미디의 형식을 빌린 한 시간 남짓의 모노드라마에서 그녀는 20년간의 여정을 담담하게, 때로 재치 있게 풀어낸다. 뒤늦게 시작한 현대무용은 권효원을 대구로 이끌었고, 지원 예산에 대한 불안은 그녀를 서울로 내몰았다. 공간과 시간을 따라가며 풀어가는 권효원의 고민들, 예컨대 동료, 지원금, 춤에 대한 고민은 객석과 공명했다.

"날고 기는 아"들이 많은 서울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에 그녀는 "그렇다면 걸어가"겠다고 답했다. 서울 무용씬에 도착한 그녀는 '작동'이나 '레이어' 같은 용어, 개념과 리서치를 강조하는 데스크워크 문화, 스스럼없이 벌이를 말하는 동료 문화 사이를 저공비행한다. 어색했던 '작동'이라는 말이 입에 붙으면서 그녀의 언어는 비로소 서울의 시간과 조율되는 듯했다. 권효원은 공연을 준비하던 중 자신이 춤을 추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는 점을 자각했다. 이미 대구에서 안무가로서 춤을 추기보다는 틀린 동작 잡기에 익숙했다지만, 그 동작은 서울 씬에 녹아들기 위해 잃어버린, 지난 20년 동안 반복해 온 대구의 '모던댄스'로 보였다. 권효원은 자신의 '현대무용'이 서울에서 과거의 '모던댄스'로 여겨졌다고 말한다. 그녀의 현대는 서울에서 동시대성을 잃은 과거가 된 것이다.

언어가 대구에서 서울로 이동할 때, 몸은 작은 소극장에 머물러 좁은 바닥을 훑고 있었다. <서울무용>의 한 장면이다. 그녀는 다리를 구부리고 발가락을 쭉 뻗어 몸을 푼다. 그리고 걷는다. 포인하며 발을 내딛는 '현대무용 걷기'는 권효원이 고교 시절부터 지난 20년간 무수히 반복한 동작이었다. 그녀는 서울의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목격한, 무용을 배운 자신처럼 무수한 반복으로 체화된 노동자의 몸에 대해 말한다. 뒤이어 그는 자신의 몸이 기억하는 '모던댄스'를 춘다. 하지만 권효원의 발걸음은 더 이상 포인하지 않고, 서울의 비싼 주차비 때문에 운전 대신 익숙해진 그 자연스러운 일상의 걸음처럼 바닥을 디뎠다.

대구의 모던한 몸 위에 서울에서의 반복이 얽히면서, 공간과 시간의 격차를 포괄하는 새로운 몸이 만들어졌다. 그녀의 모던댄스는 포인하지 않음으로써, 회귀가 아닌 유랑하는 그녀의 여정을 담아냈다. 서울은 뉴욕을, 대구는 서울을, 영주는 대구를 좇듯 동시대예술의 시차는 공간적 위계로 환원되며, 예술가는 앞선 시간을 좇아 공간을 유랑한다. 어느 곳에서도 뿌리내리지 못하는 허망한 유랑이라는 담론 아래에서 이동하는 몸은 간과되었다. 유랑하는 예술가의 몸은 유랑이 만드는, 삶의 흔적이 반복으로 누적되는 또 다른 '이동의 장소'가 되어 허망함에 저항한다. 모던댄스가 끝난 뒤, 서서히 페이드아웃되는 무대 위에서 그녀는 얼마 전 다녀온 대구, 그 익숙한 도시가 '새롭게' 보였다고 말하면서 공연을 마무리한다. 이동하는 장소로서의 몸은 시간을 포괄하여 시차로부터 벗어난다. 그렇기에 그녀는 대구를 더 이상 뒤처진 시간의 장소가 아닌,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는 동시대적인 공간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 공연은 작가의 국지적인 유랑을 담은 일종의 자문화기술지라 부를 수도 있다. 유효한 자문화기술지는 공감만으로 부족하며, 담론의 빈틈을 향해 돌출했을 때 주관적 경험을 넘어서는 힘을 가질 수 있다. 권효원의 모노드라마는 공감에 머무르지 않았다. 유랑하는 몸을 이동을 포괄하는 장소로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시차를 좇아 덧없이 떠도는 동시대예술에서 그 시차를 의심하게 하며 '작동'했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권효원의 몸은 계속 이동하고, 간직하며, 변화한다.

배경 · 권효원 <서울무용> 퍼포먼스 2026 권효원 제공